

‘플라스틱 사회’ 수전 프라인켈 지음



플라스틱 없이는 못살게 됐다

‘현대사회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를 끄면서 일어난다. 화장실로 가 샴푸통을 쥐어짜 머리를 감고 칫솔질을 한다.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며 가볍게 빗질을 하고 출근한다. 교통카드로 버스비를 내고 출근, 컴퓨터를 켜다. 점심·저녁은 신용카드 결제하고 퇴근길슈퍼에 들러 아이들 과자를 몇 개 집어든다.’

문제 하나. 직장인들의 평범한 하루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뭘까. 플라스틱에 파묻혀 있는 세상이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라고 넘겼다가는 하루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단 하루라도 플라스틱 없는 삶은 못 살게 될 세상. 이쯤 되면 ‘플라스틱의 포로’가 됐다는 말도 심한 게 아니다.

미국의 과학 저널리스트 수전 프라인켈이 쓴 ‘플라스틱 사회’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플라스틱과의 밀월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없이 살아가기” 행식을 취하는 사실적인 경험담은 아니지만 딱딱하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친숙한 플라스틱 대표 상품 8개를 캐스팅해 들려주는 행식을 취한 게 한몫을 한다. 사례로 든 ▲머리빗 ▲의자 ▲프라스틱 원반 ▲링거백 ▲라이터 ▲비닐봉지 ▲페트병 ▲신용카드 등 8가지는 일상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필수품’이다.

저자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인간이 플라스틱의 엄청난 혜택을 누렸던 때부터 환경 오염의 핵심으로 플라스틱을 지목, 멀리하게 된 현재까지 플라스틱 속살을 들여다보고 있다.

머리빗의 경우 돈 좀 있는 여인들이만 썼던 샅아로 만든 빗 대신 저렴한 플라스틱 빗 유통이 이

뤄지면서 플라스틱 소비의 대중화를 상징하는 사례로 제시됐다. 오 헨리 ‘크리스마스 선물’ 주인공처럼 급시계를 팔지 않아도 머리빗을 살 수 있게 됐다. 의자는 ‘플라스틱 미학’이 담긴 사례로 제시됐다. 플라스틱이 가볍고, 쉽게 변형되며, 색도 다양하게 표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훌륭한 ‘예술 재료’가 됐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글로벌 생산 시스템을 갖추는 데 기여한 프리스비 원반이나 링거백이나 인공 관절 등 의학 발전에 쓰인 플라스틱 의료제품, 환경 쓰레기와 오염 문제를 야기한 라이터와 비닐봉지 등의 사례도 재미있게 읽힌다.

책은 아울러 플라스틱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가 독성 문제 등 폐해가 드러나면서 어느 순간 ‘못 믿을’ 대상으로 전락한 과정도 자세히 풀어놓는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의 역사, 문화,

제조 과정을 비롯해 플라스틱을 둘러싼 정치적 사안들, 인조 합성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속 가능한 제조·처분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 등도 꼼꼼히 들여다본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취재하면서 지금껏 유지돼온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이 ‘영원히 그대를 사랑해’를 외치는 관계로 발전할 지, ‘적과의 동침’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악화될 지를 깊이 있게 고찰하고 있다.

현재도 플라스틱에 대한 시각은 우호적이진 않다. 21세기 첫 십년간 만든 플라스틱 양이 20세기 전체 기간 동안 만든 양에 육박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플라스틱은 신이 내린 선물인가 아니면 재앙인가. 플라스틱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일구는 게 가능할까. 저자가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다.

〈울유문화사·1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자기형성은 사회를 이해하려는 노력

‘기이한 생각의 바다’ 김우창 지음

김우창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가 쓴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는 인간의 자기 형성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사회 속의 개인에 대하여’, ‘자기를 돌보는 방법에 대하여’, ‘행복의 추구에 대하여’, ‘근학의 역정’ 등 4장으로 나눠 자기를 돌보는 방법과 행복에 대한 견해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양한 철학자들을 끌



어들어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책에서 개인 차원의 사회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자기형성의 중요한 과정이고 세계에 대한 지적 이해 없이는 만족할만한 자기형성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 자기형성이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행복이 역압받아서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돌베개·1만2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과거에 머무른 엄마, 미래로 가려는 딸

‘하느님의 보트’ 에쿠니 가오리 지음

‘하느님의 보트’는 한 여를 뜨겁게 내리찍는 태양과 같은 사랑을 하고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인공 여자 요코와 그런 엄마 곁에서 자라나는 딸 소우코의 성장기를 다룬 책이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난 남자를 기다리며 모녀는 이곳저곳을 전전한다. 저자 에쿠니 가오리는 기억도 없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언제까지 떠돌아다녀야 하는지 의문인 딸,



남자를 기다리는 걸 멈출 수 없는 여자 사이의 엇갈린 시선과 점차 멀어지는 모녀 사이의 간격을 세밀하게 묘사해냈다. 언제까지 떠돌아다녀야 하는지는 딸의 물음에 “우리는 하느님의 보트를 탔다”는 엄마의 설명, 기다림과 열병 같은 그리움이 절절히 묻어난다. 〈소담출판사·1만2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능강화인간을 둘러싼 의문의 살인, 배후는?

‘지옥설계도’ 이인화 지음

책 ‘지옥설계도’는 8년간 게임 페인으로 살았다는 작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소설이 씌어졌고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게임이 출시 예정이라는 등 발간부터 화제가 되지 않았던 책이다.

‘영원한 제국’의 작가 이인화 이화여대 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쓴 장편소설은 보통보다 10배 이상의 지능을 가진 강화인간과 범국가적 조직을 배후로 둔 살인사건의 추적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텔러와 추리, 판타지와 SF 장르를 섞어 독자들이 그동안 읽어보지 못했을 ‘완전히 새로운 전개’를 시도한 게 특징.



저자가 스토리 창작 지원 컴퓨터 프로그램 ‘스토리 헬퍼’(Story Helper)를 활용, 소설을 집필했다는 점도 책에 손이 가는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다. 이 프로그램은 205개의 스토리 모티프와 3만 4000개의 모티프 데이터베이스가 들어 자신이 만들려는 스토리 알개를 넣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기존의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등장했던 스토리와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소설이 게임으로 이어지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소설은 미국 쿠퍼인터랙티브가 출시할 예정인 ‘인페르노 나인’의 원작으로 사용돼 내년 선보일 예정이다. 〈해냄출판사·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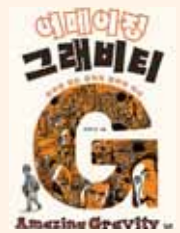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간

▲바보야, 문제는 권력집단이야=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장인 안치용씨가 역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분석해 내놓았다. 이승만부터 이명박까지 8명의 대통령이 권좌에 오른 과정과 군부, 관료, 언론 등 ‘권력 파트너’를 이끈 통치 철학을 살펴본다. 대통령의 권력 파트너는 정권의 성격을 결정하고 어떤 집단과 사람들이 보좌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 지금껏 어느 방향에서 달려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분석하고 있다. 〈한울미디어·1만3000원〉

▲스페인인사 다이제스트 100=역사 속 주요한 100장면을 가려 뽑아 정리한 ‘다이제스트 100’ 시리즈로, 스페인 역사에서 기억해야 할 100장면을 선별해 엮었다.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의 역사를 선사 시대부터 고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 아우르면서 훑어내고 있다. 고전 ‘돈키호테’, 피카소의 걸작 ‘게르니카’를 낳은 비극적 마을 게르니카에 얽힌 이야기 등 곁들여 읽는 즐거움이 적지 않다. 〈가람기획·1만8000원〉

▲거리의 인문학=노숙인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거리의 대학’, 성프란시스 대학의 인문학 과정을 담았다. 2005년 9월 1기생을 시작으로 현재 8기생을 교육이 진행중이며 1년 동안 글쓰기·문학·한국사·예술사·철학 등 5과목을 지도한다. 대학의 인문학 과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비롯, 임영인 신부가 이 대학에서 인문학 과정



을 시작한 계기, 노숙인들의 사연과 대담 등을 5부로 나눠 실었다. 〈삼인·1만8000원〉

▲넘버=문예중앙소설상(2회)을 수상한 노희준의 범죄 추리소설. 자신도 모른 사이 살인자가 된 증권보코 김대현이 무죄를 증명하려 애쓰지만 그림수룩 사건에 더 깊이 연루돼 가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엮어냈다. 수차례 살인을 저지르며 자신에게 뒤처리를 요구하는 등 자신을 닮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가로치면서 모든 게 불확실해져가는 상황이 치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민음사·1만2000원〉

▲킹메이커=EBS 다큐제작팀이 현대 사회 전쟁을 방불케하는 선거전의 내막, 진실을 파헤쳐 분석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1988년)와 러시아 대통령 선거(1996년)를 통해 드러난 네거티브 전략을 소개하고 네거티브 선거전이 유권자의 심리를 어떻게 파고드는지, 유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도 제시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SNS 활용법, 자원봉사자 모임을 통한 조직화 전략 등도 살펴본다. 〈김영사·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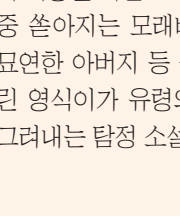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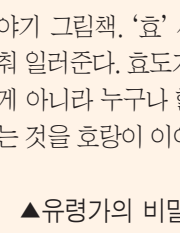
▲에메이지 그래비티=중력을 둘러싼 주요 개념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만화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뉴턴, 아인슈타인, 피타고라스, 갈릴레이, 케플러 등 30여명의 철학자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력의 응용 사례, 장단점을 쉽게 엮어내면서 등장인물의 삶, 철학까지 들려준다. 〈구리·1만4800원〉



▲마녀를 꿈꾸다=어른들의 눈높이로 이뤄진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세상과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상권씨 특유의 독특하면서 생애적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성장소설. 갈수록 커져만 가는 아이 17살 소녀 수문이와 키가 자라지 않는 주혁이, 날마다 버섯만 먹고 사는 이모, 숫자무만 먹고 사는 주혁이 아버지 등 예상치 못한 등장인물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읽힌다. 〈시공사·9000원〉

▲내 공부는 무슨 맛이니?=공부벌레인 초등학교 4학년 해나의 이야기를 통해 행복한 공부법을 제시하고 있다. 시험 범위를 맞추기 위해 대중 시간을 때우는 선생님, 수업 도중 교실을 찾는 학부모, 학교 수업 시간 학원 숙제에 매달리는 아이들 등 현실 속의 이야기가 실감나게 그려지고 있다. 〈길벗스쿨·1만원〉

▲엄마, 국어공부는 왜 해?=조금만 글이 길어져도 졸리고 내용은 커녕 낱말 뜻도 잘 모르는 준호가 영부나 완두를 키우기 위해 국어



성적 올리기에 도전하는 내용이 재미있다. 날로 어려워지는 국어 공부에 대한 재미와 방법을 알려주는 학습동화. 우리말은 다 할 줄 아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편견을 잡아 주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국어 공부의 매력을 알려준다. 〈팝파스·1만원〉

▲소원 들어주는 호랑이바위=전국에서 전해지는 ‘호사를 구한 효자’ 설화를 새롭게 각색한 이 야기 그래픽. ‘효’ 사상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일러준다. 효도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라는 것을 호랑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있다. 〈국민서관·1만2000원〉

▲유령가의 비밀=초대 한국어문학작품회 회장을 지낸 고 이원수씨의 종편 소설. 한밤중 쏟아지는 모래비, 흰옷 입은 유령, 행방이 묘연한 아버지 등 음울한 배경을 바탕으로 어린 영식이 유령의 정체를 밝혀내는 과정을 그려내는 탐정 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복스·1만1000원〉

어린이 책꽂이